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불교의 상업 윤리

현대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불교도들의 고민 중의 하나가 자본의 확충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불교적인가에 대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필자의 속내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망과 절제, 내지 욕망과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등이 다양한 사회문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한 존재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가치의 문제로 전개되면 상대적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 상식과 보편적인 윤리의 범주를 벗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익을 극대화하여 부자가 되는 절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상업에 종사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원초적인 것이며, 오랜 역사를 지속해 왔다. 부자가 되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필자도 가끔은 경제적인 궁핍이 불편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는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문제는 사람에 따라 선택한 삶의 방향이 다

부정한 수단을 배척하며, "악인은 시장에서 올바른 상행위를 망친다"(자타카)고 말한다.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짓말이란 무엇인가 남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동물적인 습성이기도 하다. 그런 점을 상업에 응용할 때 부처님께서는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령 번개가 머리 위에 떨어질지라도 재보를 위해,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을 위해 알고 있는 것을 거짓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마치 새발이 사제질 내내 보이듯이 자기가 가야할 길을 버리고 남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진실을 버리고 빈말하는 일이 없다면 너도 역시 성불하는 시절이 올 것이다"(자타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도의 문제이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뢰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는 결국 우리들의 정직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직의 중요성은 매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대차관계에서도 정직해야 한다고 말한다. 빌린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우긴다면 어떻게 되겠는

부정한 화폐·수단·저울 사용 배척

매매자간 호혜적인 상행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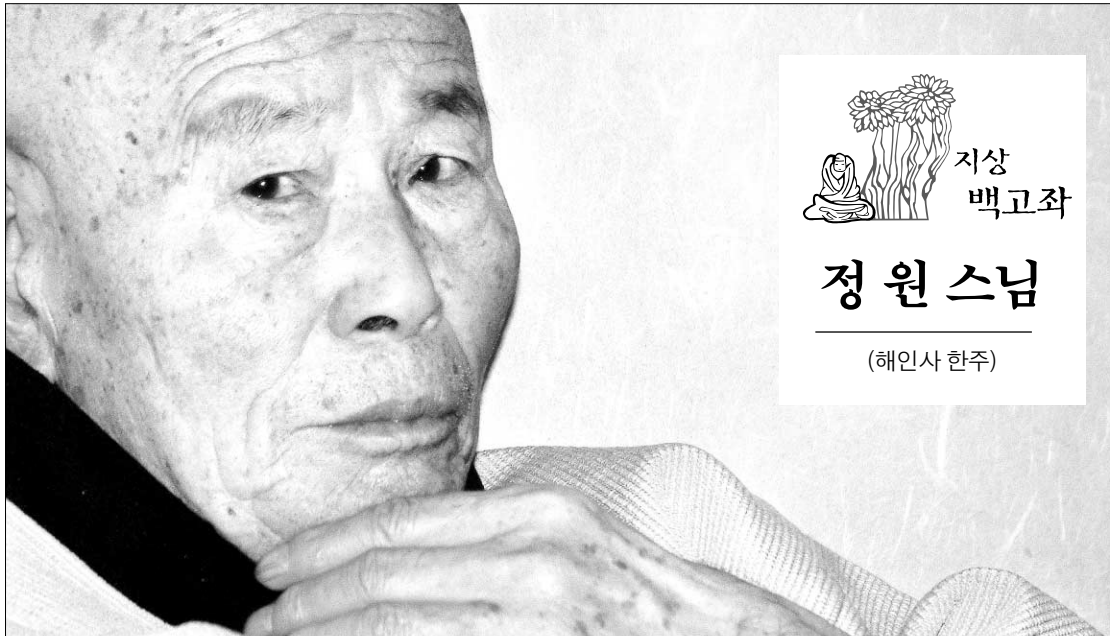
르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욕망의 불꽃은 쉽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에는 인간성이 없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일정한 목표를 지니고 있는 재산의 획득도 엄격한 윤리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 괴로움이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대시키고 축적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법을 위반하면서 사는 것과 법에 의해서 죽는 것 가운데 택일을 하려면 법에 의해 죽는 것이 법을 위반하면서 사는 것 보다 낫다"(테라가타)는 공은 신념이 각자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용어는 다의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규칙, 법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에 의한 가르침, 성자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경량이 강하다. 따라서 세속적이기보다는 초탈적, 종교적, 도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상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올바른 방법을 통해 재산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정한 화폐, 부정한 저울,

가? 불교에서는 정당한 이자놀이는 허용이 되었다(중아함경). 그것이 고리대금이라면 물론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에 의하면 채무가 있는데도 변제하지 않은 사람은 출가를 허락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이란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따라서 "충만한 사람은 적은 자본으로도 능히 입신할 수 있다. 한 점의 불을 불어서 피워 올리듯이"(자타카)라 말한다.

매에는 법이 꽃에서 꿀을 따듯이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지닐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원가에 인건비, 물류비 등을 합산한 정당한 가격을 정하고 팔아야 하는 것이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혹여 매매 과정에서 물건 값을 잘못 말했어도 사는 사람이 처음 말한 것을 고집하면 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더하여 상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세상을 읽을 줄 아는 행안이 있어야 하며, 교묘하게 활동해야 하고, 기초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흐름과 구매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불교학 박사>



◇가이산 호령이 라고 불리는 정원 스님. 팔순이지만 눈빛이炯炯하다.



일상생활 잘 하는 것도 참선

수좌 중에는 '어름한 사람'이 수행을 잘 합니다. 선방에서 사회 경험이 많고 지나치게 많이 알면 공부 안 합니다. 일지무식한 사람이 공부를 잘 합니다. 아무 것도 몰라야 공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매달리지 않고 수행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생각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은 넘어야 생각이 차차 없어져 제대로 수행이 됩니다. 그야말로 참선 공부로 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이것저것 모르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 오년까지 잠삼각이 처참할 텐데 1-2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까? 10년은 남게 선방에서 앉아 있어야 짜 없애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야 참선 공부 잘 되는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까요? 오히려 모르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많이 알면 수행은 안 합니다. 이것이 마장이 돼서 참선의 길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즉 어름한 사람이 수행을 잘 하는 겁니다.

물론 재가불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일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재가불자들이 불교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독신 수행자들도 어려운 것이 수행인데 말입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즉 불교는 마음의 불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정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결국 불교의 핵심인 평상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인데, 식별하고 불교 정신으로 선방에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보면 마음은 참선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마음의 근본 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수행자의 자세와 함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승가의 자급자족입니다.

다. 지금 승가는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신도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불사한다고 권선문 같은 것 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한국불교에서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신도들을 도와주면서

승가 자급자족 힘써야

"신도들에게만 의지하면

부처님 팔아먹는 행위"

살아야 합니다. 신도들에게만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처님을 팔아먹는 일밖에 안 됩니다. 언제나 자급자족이 되어야 합니다.

출가자의 자급자족은 '거지처럼 생활하는 결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거지답게 살면서 수행하라는 거였습니다. 진정한 거지 같이 사는 결식 정신이 지금 필요합니다. 비구는 원래 결식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습니까? 어쩌든 거지 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결인 정신을 못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공부도 잘 되고 수행자답게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가불자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수행법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재가불자들이 자기 눈에 맞는 수행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또



◇정원 스님은 화를 다스리는 데는 다도(茶道)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 매일경제신문 인제 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아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식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게일로 바꾸는 발효연액 질적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구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면이 쌓이고 관절 사이 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딱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지도 상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연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스프레이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가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

당 노

다운 밸런스

- 당노,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제품으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제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늘게 상온의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당성을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천천히 떨어지며 불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해방을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관련된 알콜성 질환에 균형을 맞추어 무너져 무너진 영양분만큼 조화롭게 합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노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x 3병
1개월분 130,000원

관객이 자신입니다. 자연식 발효연액 발효(사)한의원 박동원

당노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염, 비만증, 무릎,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간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 개선
- 자율신경신조율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부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
- 알, 관절염, 고혈압

초월메카라이프 Co.
(주)반도체약품수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대구 대승불교대학 부설 불교의식 전문대학 제2기 불교의식(범음·범패)수강생 모집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대승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전문의식반을 운영 하오니 재가 신도나 스님들의 수강신청을 바랍니다.

모집반

- ① 초급(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목욕, 요령, 경쇠, 태징, 범고, 다루는법 지도, 도량역, 맛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선례, 신중경, 축원법, 관음정공법.
- ② 중급(3개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상주권공, 대량관공, 신중작법, 지정정, 관음시식, 화엄시식, 대비시, 잠안의식, 전시식, 방생의식, 산신기도법 등등 종합적인 의식법.
- ③ 작법반(6개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6시) 사다라니, 대다라니, 관공의식등, 경쇠, 복다루는법 집중지도
- ④ 특별반(전문의를식반): 영산재, 예수재, 정안의를식반 소수운영

대승경전 강의 수강생 모집

가) 화엄, 법화사상강의: 매주 수요일 12시 ~ 1시
나) 대승보살도 기초교리과정: 매주 목요일 12시 ~ 1시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선동 1914-5 월촌지하철역 정문앞
전화: (053)622-0333

대구 대승불교대학 의식교육원 원장 합장

승복, 범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지혜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이 사랑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예동승복 직원일동 -

주복 (남자)

1. 직삼, 조끼, 바지
W160,000

2. 통방, 바지
W160,000

3. 두루막
W140,000

4. W60,000

주복 (여자)

5. 직삼, 조끼, 바지
W320,000
순면누비 W250,000

6. 통방, 바지
W220,000
순면누비 W160,000

7. 두루막
W220,000
순면누비 W160,000

초복

8. 셔츠 W60,000 (40~44호)
바지 W70,000

9. 셔츠 W30,000
바지 W35,000

10. 셔츠 W35,000
바지 W30,000

※입식, 기성, 맞춤 및 기성복은 의무주문 필수입니다.

예동승복

(주)예동승복 4층 399-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선 4층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처가권속을 거느리는 재가불자들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 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자비로운 말과 행동으로 불교를 실천하면 됩니다. 기본 나쁜 일이 있어도 마음 상하지 않게 편안하게 대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재가불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 수행법이자 실천법입니다. 물론 수행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것,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한테 도움을 주고, 또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잡했다는 말 한마디를 던져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재가불자 수행법입니다. 은 사이신 고암 스님은 잘못해도 잘 했다고 칭찬의 말을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남한테 편안한 말을 해줘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왜 못했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따지기만 한다면 잘 할 것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사법에서 애어(優語)라는 말이 있듯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잘못 정확히 짚어주는 일이 올바른 칭찬이자 애어법 실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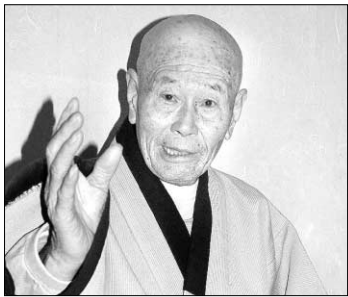
그렇다고 마냥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확히 짚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칭찬이자 애어법의 실천입니다. 바른말을 할 때는 가차 없이 말을 해야 합니다.

해인사에서 정진하면서 겪었던 일을 말해야겠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지나가는 노장 스님에게 인사할 안 하면 '애비 예미도 없애 이 놀들아, 나이 든 어른이 지나가는데 인사할 줄도 몰라' 하며 혼을 냅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합니다. 신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도들이 사찰에 기도하러 오면 사찰 예절을 지키도록 잔소리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사중 방을 들면서 늦은 아침까지 이불 깔고 자고 있는 신도들이 있으면 혼쯤을 냅니다. 당장 내쫓습니다. 물론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일년에 한번 절에 와서 편안하게 있다가려는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절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해인사 대중들은 나 보고 '가야산 호랑이' 라고 합니다. 막 내쫓겨든요. 나이든 신도나 젊은 스님들도 말 안 들으면 두들겨 뺏니다. 아직은 내가 힘이 남아도니까 뺏니다. 물론 자비문중에서 스님과 신도들을 때면 안 되지요. 말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그 때 뽀입니다. 잘 못하면 왜 잘 못 했는지 알려주면서 다독여주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패지만, 내가 하는 일이 제술에 어긋나거나 경우에 맞게 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니까, 또 다들 수긍

기자가 본 정월 스님

스님은 이 말부터 했다. "아야 가라이! 내가 신문에 나서 뭐할 건데. 확 찰까 보다. 아새끼러." "스님, 저기...". 말꼬리를 슬며시 내려야 했다. 잠시 후, 말 한마디가 대뜸 던져졌다. "총각이가? 아예 머리 깎아야 겠고만." "네?"

정월 스님의 첫 대면. '가야산 호랑이'란 스님의 별명을 잊고 있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



◊승가의 지극자족을 강조하시는 정월 스님. 부처님 팔아먹는 것을 하지 말라고 법문하신다.

으면 승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석에서 야단을 친다는 말상좌 수완 스님의 사전정보를 상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한 가지, 히든카드는 있었 다. '화화산같이 봐 볼이다'기도 돌아서면 마음에 담아 두지는 않는다'는 수완 스님의 말, 은근히 오기가 생겼다.

"스님! 소시직에 한 주먹 하셨던가요?"

그럼, 날라 다녔지. 운동도 잘해, 장구, 태권도 뚝뚝 잘해." "와! 그러세요." "고림. 참 들을 게 뭐가.

잘못 가차없이 질책... '가야산 호랑이'

간단 간단히 해. 뭐 말할 것도 없어." 대화가 이때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출가하게 된 시연, 팔손 노구를 끌고 동안거에 들어간 이야기. 실타래 풀리듯 술술 흘러나왔다.

스님은 해인사 팔손의 을축생 4명 동갑내기 노 스님 중 한 분이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극락전 도근 스님, 우화당 송월 스님, 그리고 정월 스

를 합니다. 경우에 없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맏입니다. 바른 소리로 잘 하고, 또 공하고 있지 않고, 화끈하게 해치우고 잘 풀어진다고 해서 가야산 호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경우라는 말은 사람 사는 이치를 말합니다. 남에게 책잡힐 일이나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우 바르게 하니까 다를 잘못한 것을 압니다. 수용하고 스스로 누우칩니다. 잘 못하니까 그 때 그 때 지적하는 겁니다.

재가불자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말 합니다. 그런 거짓말입니다. 직장생활만 열심히 해도 불교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고, 시간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불교를 바로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뭐 따로 불교를 믿어야 불교를 믿는 건가요? 그런 아닙니다.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게 불교를 바르게 믿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잘 못하면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헛 짓거리입니다. 일상생활을 잘 하는 것이 마음의 불을 찾는 일입니다. 직장생활도 잘 하고 책임을 다 하는 것이 마음의 불인 것입니다. 따로 불교를 찾을 것도 없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마음의 부처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고 참선입니다. 마음의 불을 따로 찾는 것만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생활 속에서 찾으십시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직장생활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화두도 돌리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 도반으로 삼아 서로 마음을 맞추고 상대방의 마음에 맞게끔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바로 직장이 바로 수행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수행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나 재가불자들은 끝 없이 도둑질할 수 있는 배짱을 키워야 합니다. 왜 세상을 잘 못 삼니까. 이런 세상의 이치만 안다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뒷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힘은 바로 뒷심에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우거나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뒷심과 이해력이 부족한데서 비롯됩니다. 뭐 특별한 것 없습니. 수행은 출가자들 재가불자들은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데서 시작됩니다.

정려=김철우 기자



◊"어여 가래이. 서울 길러른" 우화당 틈타 루에서 스님이 배웅을 하고 있다.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오성 스님(1)

오성 스님은 바다 곁에 산다. 스님의 절에 가 있으면 어디서나 바다를 볼 수 있고 바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의 방에서 문을 열면 바다의 내음과 바다의 모습, 소리가 한 눈에 들어온다. 그 절의 해우소에서도 바다는 작은 창을 넘어 아름답게 들어온다. 방에서도 해우소에서도 바다가 보이는 스님의 절은 바다가 절이 되고 절이 바다가 되는 아름다운 절이다.

바다 곁에 오래 산 오성 스님에게서도 나는 바다의 소리와 내음을 맡는다. 그에게서는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울림이 있다. 그것은 슬픔일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일 수도 있다. 그 울림은 물결이 들고 나는 것처럼 마음을 밟고 와 긴 여운을 남기며 사라져 간다.



그림·문병성

그러나 바다가 지혜로운 것처럼 스님 역시 지혜롭게 시간의 빛 가까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의 그 깊은 울림 그리고 가끔씩 출몰해 보이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다만 그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정갈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내가 해인사에서 처음 방부를 들이려 갔을 때 오성 스님을 처음 만났다. 스님은 그 때 내가 방부를 들이려고 하는 처분반의 반장 소임을 살고 있었다.

한 학기가 끝나고 또 한 학기가 시작된 가을 어느 날, 방부를 들이기 위해서 그의 앞에 서 있는 내게 스님은 대단히 위대해 보였다.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리벉벉해 있는 내게 스님은 자상하게 방부에 관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내게 기다리라고 하며 말했다.

"스님이 해인사 강원에서 살고 못살고는 오늘 우리 반 스님들이 대중공사를 해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반 스님들이 찬성을 하면 해인사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반대한다면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님이 우리 반에서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나는 문득 겁이 났다. 방부는 무조건 되는 것으로 알고 은 내게 반장인 오성 스님의 그 얘기는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방부가 안되면 당장 어디로 갈 것이며, 그토록 위세 좋게 은사스님의 절에 더 있으려는 부탁도 뿌리치고 은 순간들이 갑자기 후회하기 되기 시작했다. 나는 초조하게 밤이 오기까지 대중공사의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다. 그 초조한 기다림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장 스님의 얘기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밤 늦게서야 그는 방부 합격 소식을 가지고 왔다. 방부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툭 뺏이 기했다. 그 한 마디에 은사스님에 대한 생각과 거처에 대한 걱정을 모두 날려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아 알게 됐는데, 방부 결과는 다음 날 아침에 알려 주는 것이 통례였지만 오성 스님은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미리 알려준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나의 방부를 통과시키기 위해 그의 말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스님과 만났다. 만약 스님의 친절함이 없었더라면 나는 해인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

방부 절차·방법 자세히 알려줘

제주 역사·문화에 해박한 지식

저 맛있게 증노릇의 초년시절을 보냈을런지도 모른다. 스님과 함께 공부할 하면서 그의 사람에 대한 애정과 진지함이 얼마나 큰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때의 그 친절 역시 그런 삶의 자세에서 나온 자연스럽게 결과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러나 스님은 그 후 일년 정도를 함께 공부했을 뿐이다. 사십만이 되고 어느 날 은사 스님이 부른다면서 제주도 절로 떠나고야 말았다.

나는 방학을 하면 도반들과 함께 스님이 계신 절을 찾아가곤 했다. 스님은 우리에게 제주의 명소만을 안내해 준 것만은 아니다. 제주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마치 향토 사학자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만큼 그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이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닷가에 홀로 앉아 있거나 바다를 거닐 때 얼핏얼핏 보이던 잡초지 않는 그의 외로움이었다. 출가한 수행자치고 외로움의 기억 하나 없는 이 없지않은, 스님결에서 깊게 그림자를 드리우던 그 외로움의 모습은 유독 깊고 크지만 다가와 내 가슴 한 편을 쓸쓸하게 물들어 나갔다. 외로움을 안고 있으나 외로움을 말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의 사람 속에는 얼마나 깊은가.

문득 스님의 깊은 세월의 얘기를 들을 날이 언젠지기를 헤아려 보고 싶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엔 산삼보다 효능이 좋 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 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 한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 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 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주문 이 채도하고 있습니다.

蔓蔘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력이 좋아졌다.
- ◆ 안색이 좋아졌다.
- ◆ 피부가 좋아졌다.
- ◆ 기력이 좋아졌다.
- ◆ 만성위염이 나왔다.
-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 전신이 떨어졌다.
- ◆ 몸이 부기가 빠졌다.
- ◆ 자궁 냉증이 없어졌다.
- ◆ 혈액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사주풀이하는 마음으로 영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원을 20만원에 드리겠으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달인물(만삼생것10kg, 원기, 잔대, 삼지귀암초, 생강, 대추, 곱소)
■ 1Box × 60포 : 20만원 ■ 2Box ×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 8292, 562 - 2165
◆ 성 명 : 심 정호 H-P 011 - 9242 - 8292
◆ 송금계좌번호 : 315024 - 52 - 012392 (예금주 : 심정호)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장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마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마 180,000
3. 무명, 면 : 면 100%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마 140,000
4. 솜 없는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마 170,000
5. 면 목욕수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마 210,000
6. 골 덴 : 면 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데카사 150,000 반카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이열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이백옥점 방방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친목 업체 원방각
전시장 : 053-256-0108
공 정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리안매점 모인)

국제 수준의 타로(TAROT) 카드 교육 실시

1. 타로카드 교육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타로(TAROT)카드를 국제 수준에 맞게 배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양계 주역이 있는 첫 번째 서양계는 타로카드가 있어 왔습니다. 타로카드에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을 징차는데 쓰입니다.

1. 연애와 결혼 2. 인간관계 3. 금전문제 4. 사업문제 5. 일 처리 찾기
이밖에도 인생의 운과 과정에 선택, 결단, 결정을 내리는 데도 쓰이며 연구 개발, 사업기획, 정책입안, 문제해결의 길을 찾는 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저 카드 보면 서 상상을 하거나 해도 정신수련, 마음수련, 정신위생, 무지훈련, 상상력훈련에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우리 국제타로학원에서는 지난 1년만에 걸친 준비를 완료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타로카드의 단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재로 쓰 이는 타로카드도 우리나라 미르세이유 타로카드를 원전에 복원한 카모정판 미르세 이유 타로카드를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카모정판 미르세이유 타로카드 1세트 35,000원
- ◆ 교육일시
- 1차 제1단계 : 03년 11월 22일(토) ~ 23일(일) 선착순 24명
제1단계 : 03년 11월 29일(토) ~ 30일(일)
제1단계 : 03년 12월 6일(토) ~ 7일(일)
제2단계 : 03년 12월 27일(토) ~ 28일(일)
제3단계 : 04년 1월 24일(토) ~ 25일(일)
- 2차 제1단계 : 04년 1월 3일(토) ~ 4일(일)
제2단계 : 04년 1월 31일(토) ~ 2월 1일(일)
제3단계 : 04년 2월 21일(토) ~ 22일(일)
- ◆ 참가비 : 각단계 12만원 균일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2. 레이키(Reiki) 교육
레이키에서는 10시20이면 누구나 1회(레지 오면)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키(레)는 아른 엔트리는 특유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1회(레지)로 원력지로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 입니다. 어떤인든 우리의 운명을 단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원이란 할 수 있습니다.

- ◆ 우스니 레이키 : 교육기간 2~3일 전수비 50만원
- ◆ 카루나 레이키 : 교육기간 1일 전수비 30만원

국제타로학원(한글도메인)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박희준)
인터넷 www.Reiki.co.kr

- ◆ 전화 : 021720-5682, 720-5719 핸드폰 019-392-2557
- ◆ 주소 : 서울시 중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809호

춘천 옥매트 흥삼메딕스
오랜경험의 자연치유 전문점 - 미병 · 난치병 모두상담

우리가족 건강 ...

기후 흐름이 생명력을 좌우한다!
기는 건강의 많은 문제를 풀어줍니다.

구름구름 전문홍삼 제조비법 최초 과학화!
경북과학대학 바이오건강연구소 개발 특허!

육점수와 춘천옥을 넣어 중추한 기가 강한
홍삼원액을 마시고 춘천 옥매트 위에서
주무세요. 함으로 온갖 건강을 도모합니다.

서비스 품목
◆ 옥매트(진품)
◆ 홍삼원액
◆ 홍삼제조기

일화하나 : 무를 연골이 달아서 일어시키기가
힘드셨던 80세 할머니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걸썩걸썩 뛰여 보이십니다.

02-777-0105 헬스테크상사